

“TV속 아버지처럼 치다가 좌타자 됐어요”

-우타자 이순철의 아들 두산 이성곤

아빠의 끼·재능 물려받은 2세대 ‘야구 패밀리가 떴다’



국제중서 야구하러 전학 간 아들에게 이호준 “공부 그만하고 빨리 자야지” 철완 송진우 두 아들도 프로야구선수 아버지 넘게 목표인 이종범의 아들 선동열 “엄마 닮은 올 아들은 골프선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2세 야구인' 들은 숙명처럼 아버지와의 비교를 받게 된다. 나란히 1차 지명을 받은 이종범-이정후 부자, 일부러 조연을 피한 아버지와 그를 존경한 아들 이순철-이성곤 부자, '삼부자 야구 패밀리' 유승안-유민상 부자(왼쪽부터). 사진제공 | 넥센 히어로즈, 스포츠동아DB

미혼이거나 아직 신혼인 선수들에게 물어 보면 열에 아홉은 “아들에게는 절대 야구는 안 시킬 생각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훌륭한 유전자들 왜 살리지 않냐?”라고 되 물으면 “너무나 힘들게 운동해서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거나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고교 때 4번타자를 해도 프로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답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며 부모의 뛰어난 신체적 재능을 쏙 빼달거나 남다른 승부욕과 근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절반 정도는 생각이 달라진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상이다. 아버지가 TV에도 신문에도 나온다.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 포레드 사이에서 슈퍼스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뛰는 야구경기를 매일 보며 자

란다. 아버지의 친구들도 대부분 야구선수다. 아버지는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아들을 보며 슬슬 욕심이 난다. 아들도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둘 아들들은 야구공과 배트를 잡는다. 이제 대를 이어 성공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전교 1등 아들도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전학

NC 이호준(41)의 큰아들 이동훈(15)은 공부를 잘해서 국제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슈퍼스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야구를 시켜 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수원북중학교로 전학했다. 이동훈은 야구부 선수지만 1학년 내내 빈에서 시험성적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수재다. 이호준은 “공부

를 잘했기 때문에 아이 엄마와 고민도 하고 의논도 많이 했다. 결론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응원하기로 했다. 야구선수는 밥 많이 먹고 일찍 자야 하는데 여전히 공부에도 흥미가 커서 늦게까지 책을 본다. ‘공부 그만하고 빨리 자야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웃었다. 이호준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다. 대부분 엘리트 야구선수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단체 훈련을 받는다. 출발은 늦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과정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선택한 결정이었다.

●물려받은 야구 DNA, 그러나 아버지와 비교는 속명

송우석(24·전 한화), 송우연(21·넥센) 두 아들을 프로에 입단시킨 송진우 WBC 대표팀

투수코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야구를 했던 것 같다. 운동 좋아하고 잘 뛰고 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2세 야구인들은 건장한 체격을 자랑한다. 또한 대부분 재능도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다. 류종일 전 삼성 감독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야구에 관심을 가졌는데 공 받고 던지는 모습을 보며 ‘선수로 대성하기는 힘들다’는 느낌을 받아 말했다. 다행히 금세 흥미가 바뀌더라”고 추억했다. 아들이 골프선수인 선동열 전 KIA 감독은 야구를 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엄마 닮았다”는 농담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2세 야구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000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프로입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성공해도 야구 역사에 이름을 남

긴 대선수인 아버지와 비교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주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2세 선수도 많지만 남다른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도 많다. 아버지의 교육방법도 큰 영향을 미친다. 넥센에 1차 지명돼 ‘부자 1차 지명’이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이종범 MBC스포츠+ 해설위원의 아들 이정후(19·넥센)는 “아버지와 포지션(유격수)도 같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비교됐다.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들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고교시절부터 초특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정후는 “야구역사에 전설적인 이름을 남긴 아버지를 뛰어 넘고 싶다”는 당당한 다짐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큰 언덕, 가족이 힘입니다...온 가족이 즐기는 설 연휴 되세요.

설 연휴 27~30일자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인터넷뉴스는 계속됩니다.

주최 스포츠동아 · 마중여행사

히말라야 만나푸르나

무스탕·푼힐 야생화트레킹 10일

포카라 · 무스탕 · 카그베니아 · 묵티나트 · 푼힐

2017년 3월 27일(월)~4월 5일(수)

／ 네팔 만나푸르나 3대트레킹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엄선된 트레킹

- 신들의 땅, 은운의 왕궁 무스탕 트레킹
- 만나푸르나 라운드 트레킹
- 정통 로얄 트레킹 코스를 연결하여 한번에 히말라야 트레킹의 진수를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 옛 티베트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무스탕왕궁의 초입 줌숨·묵티나트

／ 일출을 볼 수 있는 만나푸르나·다올라기리·차푸차레

／ 투루체 대표적인 설산 뷰포인트인 고라파니 트레킹·간드령 트레킹

-최초 고산적응매 무리가 없는 최고고도인 줌숨 부터 트레킹을 시작,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코스로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

／ 주요일정

- 3월27일 카트만두 도착
- 3월28일 포카라 공항 도착 (포카라 페라호수 보트타기·데비폭포·난민촌 방문)
- 3월29일 힌두교와 라마불교성지 묵티나트 사원답사, 트레킹 (포카라 공항 → 줌숨 공항 → 예콜라비 → 카그베니아 → 묵티나트 → 카그베니아)
- 3월30일 카그베니아 → 줌숨 → 투루체(차랑이동) → 리르중 → 칼로파니(총산행시간 약5-6시간 소요)
- 3월31일 칼로파니 → 가사 → 룽세 → 다나 → 따또빠니(히말라야 노상온천 체험)
- 4월1일 따또빠니 → 가라 → 시카 → 팔라테 → 치트레 → 고라파니
- 4월2일 푼힐전망대 일출조망(2-3시간 소요) → 고라파니 → 데우랄리 → 반탄티(원시림속 트레킹) → 타다파니 * 만나푸르나, 다올라기리, 마차푸차레, 투루체, 날기리연봉, 티베트의 산 등 가장 아름다운 히말라야 고산 연봉 조망
- 4월3일 타다파니 → 간드령 → 김채(차랑이동) → 나아롬 → 포카라
- 4월4일 포카라 공항 출발 → 카트만두 시내투어 (전통학사체험, 타델시장, 쿠마리하우스, 몽키템플, 소양부나트 등)
- 4월5일 카트만두 출발 → 인천도착

* 국제선 왕복항공료(대한항공 편) 및 택스, 국내선, 호텔(2인1실)·뭇지(2인1실 혹은 다인실), 식사, 전용차량, 입장료, 인솔자(T/C), 설파, 요리사, 포터, 팁, 보험료(1억)등 포함요금입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개인경비 및 외제포함.

참가비 : 353만원 (스포츠동아 독자 및 가족 특별할인가 338만원)

참가문의 : 마중여행사(주)

TEL : 02-730-2270, 070-4177-2555

FAX : 02-730-7911 E-mail : judy4@naver.com